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2주일
제3권 40호(다해) 2010-8-29

[묵상]



카나의 혼인 잔치 <13세기, 유려화, 캔터베리대성당, 영국>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자신에게 적당한 자리를 골라 앉아야 합니다.
주제넘게 윗자리를 차지하면
눈총을 받거나 결국 끝자리로 밀려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낮추는 이는 높아지죠.
인간의 관계는 늘 높낮이로 평가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십니다.
누구의 초대를 받으면
당연히 보답을 해야 인지상정이라 여겨왔습니다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가 보답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초대할 수 없는 곳으로 저희를 부르십니다.
저희에게 금전을 베푸시면
저희가 금전으로 갚을 수 있고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면
저희의 능력으로 보답할 수 있으니
이렇게 저희가 되갚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님은 저희가 되갚을 수 있는 것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전승유 시몬, 손영달 & 강소아, 전길례 모니카 (생)성영님 엘리사벳, 성유진 로렌스, 성호재 시몬, 최태훈 아오스딩, 강호광 스테파노&신정원 마리아
주 일 낮 미사	(연)민요한 & 마리아, 김길제 안드레아, 조지 가보라, 서인수 요셉,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여성분 로사, 엄은섭 도로테오, 김인영 베드로, 노식 베드로, 김순성 마리아, 김현숙 마리아, (생)이정용 야고보 & 이운조 글라라, 허정자 리타, 홍주희 안나, 서석민 가브리엘, 박형두 제이콥, 김종렬 베드로, 김종봉 프란치스코 & 프란치스카, 최성자 카타리나, 홍정순 세실리아, 모 안토니오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17-18.20.28-29

화답송 ○하느님은 자비로이,
없는 이의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전례성가 88, 연중 제2주일 다해〉
○의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다만 즐기고 즐기나니,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느님이,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시로다.
하느님은 의로운 이에게 집을 마련하시고,
사로잡힌 몸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나니.○
○하느님이 당신 산업에 넉넉한 비를 내리시어,
강마른 그 땅에 생기를 돌구셨나이다.
당신의 양떼가 그 안에 살았으니,
하느님은 자비로이
없는 이의 땅을 마련하셨나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 12,18-19.22-24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복음 루카(Luke) 14,1.7-14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30	230
봉헌	231	231
성체	291	291
파견	238	238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생명의 복음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완성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이 지닌 의미에 빛을 비추신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사형 집행인들의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성부께 드린다.(루가 23,34 참조).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청하는 죄수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루가 23,43). 그분께서 돌아가신 뒤에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마태 27,52). 예수께서 애써 이루신 구원은 생명 부여이며 부활이다. 과연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생활 전체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좋은 일을 해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셨다.(사도 10,38 참조).

그러나 그분의 기적, 치유 그리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 나신 일까지도 또 다른 구원의 상징이었다. 그 구원은 바로 죄의 용서인데, 그것은 인간을 그의 가장 큰 병에서 해방시켜 하느님의 생명을 향해 다시 서게 하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쳐든 기적이 십자가 위에서 재현되며(요한 3,14-15; 민수 21,8-9 참조) 충만하고 결정적인 완성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에도 못에 찢린 그분을 쳐다봄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51).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본인을 깊이 감동시키는 구체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요한 19,30). 그리고 나서 로마 병사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요한 19,34). 이제 모든 것은 완전한 충만함에 도달했다. 숨을 "거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성령(숨)을 내어주심"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내시며,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신다.

이제 인간이 나누어 받고 있는 생명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상징되는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서 계속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그들을 새로운 계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다. 생명의 원천인 십자가에서 "생명의 백성"이 태어나고 성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세상에 오시면서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히브 10,9) 하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서 성부께 순명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고" (요한 13,1), 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다.(◆계속)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은 자리에 민감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나 능력이 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즉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게 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훌륭한 치세술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올라가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은 기를 쓰고 위만 쳐다보며 살아가지만, 그저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위험, 사람들로 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위험, 결정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 나라 혼인잔치에서는 완전히 거꾸로임을 예수님은 알려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월 새 없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사람들은 인정하고 가까이 대합니다. 자리를 정해주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는 낮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이것저것 못한다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장점은 장점으로 인정하고 단점은 단점으로 내 안에 있는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자리 매김은 내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

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보답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시며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답을 받지 못하겠지만 하늘 나라에서 받을 보답을 희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꼴찌가 되고 손해만 볼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고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래하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주었으면 그만큼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내가 되돌려받지 못하면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드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에 그분께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상으로 모든 것을 베풀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무상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희망하며 아낌 없이 베풀 수 있을 때 우리는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 대탐소실하는 하느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 바오로수도회 준관구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례부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전례부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례부	김금자 데레사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만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중철 아브라함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만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9월 순교자 성월

◆ 병자 영성체 : 2일(목)
오전 10시부터 방문

- ◆ 성시간 : 2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토런스 동구역
- ◆ 성모신심 미사 : 4일(토) 오전 8시30분

◆ 목요일 아침미사(9시)는 당분간 없습니다.

◆ 본당 신부님배 축구대회 및 족구대회 개최

- 일시 : 오늘 주일(29일) 오후 1시
- 축구대회 : 양업회, 대건회, 원서회, 청년회
- 족구대회 : 성모회, 자모회, 원서회자매, 청년자매
- 선수구성 : 축구 각 7명, 족구 각 6명
- 상품 : 1등 트로피 및 부상 증정
- 연락처 : 박상진 바오로 ☎(213)819-4242, 김철민 요한 ☎(310)740-1502, 이상용 엘리야 ☎(310)650-6057

◆ 남가주 제32차 남성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 울뜨레아

- 일시 : 오늘 주일(29일) 오후 8시 강당
- 새꾸르실리스타 : 이철우 야고보, 김성현 유스티노, 김용상 패트릭
- * 봉사자 : 황철수 베드로, 천광락 야고보,
- * 울뜨레아 간사 :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9월 구역장 / 반장 모임 닷새 앞당깁니다.

- 그동안 연기됐던 구역장/반장 친교모임을 8월31일 송림장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9월 첫주일에 있을 월례회의를 겸합니다.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8월31일(화) 오후 7시 송림장

◆ 레지오 마리에 야외행사

- 일시 : 9월11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장소 : Ryan Park(P.V.) 점심 제공
- 야외미사와 함께 행사가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의 가족, 협조단원 및 레지오에 관심있는 모든 분은 참석하시어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연락 : 꾸리아 단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제대회 창립 총회

- 일시 : 9월5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임원진 : 회장 오창애 안나, 부회장 엄영숙 마리아, 총무 한혜경 율리아나, 회계 국수지 안젤라
- 제대회원 : 백삼위에 교적을 둔 30세 이상 여성교우 누구나 환영합니다.
- 활동회원 : 미사준비, 꽃꽂이, 성물판매, 제의방 정리정돈 등 전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며 봉사합니다.
- 일반회원 : 위와 같이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가입을 바랍니다.
- 한달에 한번(매월 첫 목요일 저녁미사, 성시간 겸함) 회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연 1회이상 회원피정 있을 예정입니다.
- 연락처 제대회장 오창애 안나 ☎(310)974-2857

◆ LA 대교구 발급, 성체 성혈 분배권자 증서 수여식

- 일시 : 9월12일(주일) 낮 미사 중
- 대상 : 성체 성혈 봉사교육을 이수한 교우 25명
해당 교우들은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정웅 요한 ☎(310)720-8240
최재은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310)694-4585

◆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개강

- 여름에 휴강했던 렉시오 디비나 성경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 일시 : 수요일 9월15일 오전 10시,
금요일 9월17일 오전 9시30분
 - 지도 : 문 밥티스타 수녀님
 - 장소 : 사무실 앞 강의실

◆ 빈첸시오회에서 빈 김치병을 모읍니다.

- 불우이웃돕기 김치판매를 앞두고 빈첸시오회에서 빈 김치병을 수거합니다.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입니다.

- 상본(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사무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29일(주일) : 토런스 서 2반(잔치국수 \$3)
- 9월5일(주일) : 레이버데이(노동절) 친교점심 없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고천용	국세찬	김성현	김세련	김우용	성전헌금	강순복	고천용	국세찬	김우용	노새미	민기남
	노새미	민기남	박광자	박완철	박창민	서성용		박광자	박완철	박창민	서성용	신순철	원건희
	송준규	신순철	원건희	이경용	이현주	이호메		이경용	이일길	이현주	이호메	장수창	정훈모
	장수창	정병훈	정훈모	조준재	최수복	최이원		조준재	최이원	최현찬	한연만	한혁수	홍석인
	최현찬	한연만	한혁수	홍석인	합계 : \$2,920						합계 : \$2,630		
미사헌금 : \$2,732													

공지사항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학기시작 : 9월12일(주일)
- 수업시간 : 주일아침 9시30분 학생미사후~오전 11시45분
- 대상 : 유치부(9월기준 4살반 이상)~12학년
- 등록기간 : 9월12일(주일, 이후 \$10 추가)
- 등록비(1년) :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 \$40 (가정당)
- 접수 : 미사후 현관 접수처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속히 마치주시면 모든 준비에 도움이 되오니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 백삼위 한국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일자 : 8월29일~9월12일(이후 \$10 추가)
주일학생미사~11시 미사 전후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이 금액에는 대교 Enopi 교재 \$40과 SAT II 교재 \$75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업시작 : 9월12일(주일) 낮 12시~오후 3시
- 대상 : 만 4세반 이상~
- 특수반 문의 : 이해레나 한국학교장 ☎(310)347~8765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정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8/6(금) 오후 7시 920-5153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정기은 비오 8/14(토) 오후 7시 530-7702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19(목) 오후 8시 800-5612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혜원 아네스 780-0369 8/13(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 엘리사벳 8/7(토) 오후 6시 543-4953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정정현 베네딕다 8/14(토) 오전 10시30분, 성당 720-2876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오명섭 미카엘 8/20(금) 오후 7시 326-1519
	2	이정수 헬레나 972-9193	박희자 마리아 8/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972-9193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상철 크리스토퍼 8/14(금) 오후 5시30분 750-4051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스텔라 8/6(금) 오후 7시 213-272-8393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정 레나타 808-5005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오영섭 스테파노 8/13(금) 오후 7시 891-3688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8/14(토) 오후 7시 541-3087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택수 프란치스코 8/13(금) 오후 7시 560-6615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남가주 소식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과의 봉헌 및 봉헌갱신 미사

- 일시 : 9월8일(수)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한인천주교회
- 준비물 : 묵주와 가톨릭 성가집
- 주관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미주평의회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새회원 모집 설명회

- 일시 : 9월19일(주일) 오후 2시30분~5시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천주교회 한인회관
- 참석대상 : 기존 회원들과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9~10학년
학생과 보호자 1명 * 지도 : 최용훈 요셉 신부
- 신청기간 및 문의 : 8월23일~9월10일까지
☎(323)734~4946, scyc2006@gmail.com

◆ 모 안토니오 신부님 사제서품 50주년 감사미사

- 일시 : 9월25일(토) 오후 5시30분
- 장소 : LA 성 그레고리 한인성당
- 축하식 : 미사 후 ☎(323)734-4946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신부님배 족구/축구대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노동절 연휴	단체모임 없음
--------	---------

주보로 배우는 고리

가정에서 조상에게 제사 드릴 때 규제 조항은?

☞ 우리가 성당을 청할 때 어떤 때 본당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합니다. 성당, 본당, 교회란 칭호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교회, 성당, 본당. 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란 좀 어렵군요. 때로는 같은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이지요. 형제님께서 다니는 주엽동 천주교회도, 천주교 주엽동교회, 주엽동본당, 주엽동성당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교회(敎會)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인 교회'라든가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라는 신앙고백을 하지요. 그 외에도 건물이나 하나의 본당 공동체를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 주엽동교회'의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 교회는 본당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고 보겠습니다.

본당(本堂)이란 지역사회 속에서 기초적인 교회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위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주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상주하면서 정해진 관할 구역을 사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당(聖堂)이란 이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뜻하지요. 즉, 전례행위가 이루어지는 성체가 모셔진 건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교성당, 수도원성당도 다 포함됩니다만 반면 모든 성당이 다 본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성당이든 본당이든 교회가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주일 미사 때 제1독서와 제2독서를 신자들이 낭독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제1독서는 남성이 읽고, 제2독서는 여성이 읽어야 하는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씀의 전례에서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례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독서(讀書)라 합니다. 그러기에 미사에 참례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서자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일과 달리 주일에는 구약성서에서 하나, 신약성서에서 하나, 그리고 4복음서 중에서 한 부분을 택해 낭독을 하지요. 평일의 독서는 홀수해, 짝수해 이렇게 2년 주기로 하는



반면 주일은 가, 나, 다해로 구분하여 3년 주기로 그 내용이 바뀝니다. 물론 미사 중에 복음은 부제나 사제만이 읽을 수 있지요.

따라서 그날의 복음을 제외한 신·구약 부분을 편의상 제1독서, 제2독서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1독서가 제2독서보다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고, 더구나 여성들에게는 늘 제2독서만 맡긴다면 오해가 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1독서, 제2독서는 편의상의 구별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신약을 읽는 제2독서가 더 좋은 몫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 깊은 반

성과 숙고가 필요합니다.

☞ 신자들도 가정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규제조항은 없는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창기 한국 천주교회는 조상 제사 문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물론 동양 문화에 대한 서구교회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후 이에 대한 반성이 이는 가운데, 1939년 교황 비오 12세는 "죽은 이의 상(像), 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 머리를 숙임과 기타 민간적 예모를 표시함이 가하고 타당한 일"이라며 조상 제사에 관한 상당한 완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깊은 효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목적에서 시작된 조상 제사도 그 의례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 즉 미신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물론 오늘 날 그 누구도 이런 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상들에게 존경과 효성을 표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제사 예식 중에 혼백(魂帛)을 불러들이는 강신(降紳)이나 영혼이 음식을 뜯 수 있도록 청하는 축(祝)이나, 잠시 문을 닫는 함문(閤門) 등은 금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패는 신위라는 글자없이 다만 이름만 써서 모서기를 권합니다. 또한 몇몇 신부님들에 의해서 신자들이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제사 양식이 시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양식들이 발전, 보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